

“조악한 技術用語 범람막자”

—무의식과 日帝잔재 아직도 활개쳐



崔 在 和
〈成均館大교수 · 土木工學〉

言語는 인간의 意思를 전달하는 보편적 수단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개개인이 구사하는 말씨를 견주어 그 사람의 지식과 교양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고, 더불어 그 사람들이 소속하고 있는 사회집단의 문화적 尺度를 가늠할 수도 있다.

더구나 今世紀 후반에 접어들어 우리들이 맞고 있는 産業情報社會에서는 언어의 정보매체로서의 역할이 날로 중요시되고 또한 커져 가고 있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언어의 형태가 단순, 명료하여 다량의 정보를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것은 컴퓨터의 機械語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언어의 역할을 신속성, 간편성, 정확성등의 능률성의 제고에 우선하다 보니 여기에서 파생되는 언어의 역기능적 영향이 만만찮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이들 병폐 가운데 몇몇 가지를 例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事例1 「“퍼센트(percent, 百分率)”를 “프로(pro)”로 잘못 쓰고 있다.」

요즘 증권가의 종사원, 공무원, 교사 및 교수, 방송인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종사자가 백분율을 “프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는 현상인데, 이는 外來語의 土着化 과정에서 편의성을 내세우는 동기를 강조하겠지만 너무 지나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백분율(1/100, 記號는 %)과 千分率(1/1,000, 記號는 ‰)의 英語 표기는 각각 percent, permille이며 그 발음은 퍼센트, 퍼밀이다. 이들을 라틴語圈(프랑스語, 스페인語 혹은 이탈리아語)에서는 프로센토(procento) 및 프로밀(promille)로 표기한다.

예컨대 株價가 5프로 떨어졌다고 할 때에 이미 통념상 그렇게 인정된(길들여진? 양해된?) 社會(키뮤니티)에서는 주식가치가 前番과 비교할 때에 5/100만큼 하락했음을 認知하게 된다. 그러나 엄밀히 표현하자면 5/100인지, 아니면 5/1,000인

지 분명하지 않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분야에 따라서는 이 애매한 표현이 심각한 문제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土木工學에서는 도로의 경사도(기울기 또는 물매)는 백분율(%), 鐵道の 경사도는 천분율(‰)로 표기하고 있다.

“프로(pro)”라고 하는 것은 英語의 “퍼(per)”와 대동하는 어휘이므로 意譯하자면 “마다(每)”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프로”를 편의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도 日本式 외래어 사용법을 모방한 데에서 유래된 듯하다.

日本の 외래어 정착과정에서는 그들 특유의 축소지향적 文化根性이 뿌리 박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日本式 외래어 표현법이 우리에게도 편리할 것이라는 인식은 고쳐야 한다.

“프로”라는 표현은 1/100인지 1/1,000인지 애매한 점도 문제이러니와 프로그램(program), 프로페셔널(professional), 프로덕션(production), 프로모우터(promoter), 프로스티튜트(prostitute) 등의 축소형으로도 쓰고 있으니 더더욱 혼란스럽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를 확대 演譯하여 프로테이지(protage; 百分率?)라는 新造語까지 만들어 널리 쓰고 있으니 문제의 심각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英韓辭典을 찾아보면 프로테이지(protage)라는 단어는 없고 퍼센테이지(percentage; 百分率)라는 어휘는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즉 1/100을 1프로라고 할 것이 아니라 1퍼센트, 1/1,000은 1퍼밀로 표현하여야 한다. 만일 퍼센트, 퍼밀이 외래어가 돼서 마땅하지 않다면 퍼센트는 푼(分), 퍼밀은 이(厘)로 하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傳來로 1할(割)은 1/10, 1푼(分)은 1/100, 1이(厘)는 1/1,000로 써왔기 때문이다.

事例2 「부피(체적 또는 용량)를 무게
힘의 단위인 킬로그램(kg) 또는
톤(ton)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河川の 流下量 또는 저수지의 貯溜量의 단위를 몇 톤(t)이라고 표현하는 사례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관행인지는 몰라도 전문영역은 초월하여 우리들 일반국민의 언어생활에 이미 깊숙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條理(理致)에 맞지 않는 비과학적 언어생활임은 물론이고 2世의 교육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사회에서 상용하는 것이 달라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雨期가 되면 연중행사처럼 겪어오고 있는 洪水때에 방송관계인, 정부의 공무원, 관계기술자, 교수 가릴 것 없이 입만 열면, 예컨대 지금 八堂댐에서 수문을 몇개 열었으니 초당 몇만 몇천 “톤”의 물이 방류되고 있으니 인도교의 수위(洪水位)가 …, …, 云云한다.

강의 流下量(discharge) 또는 홍수량의 단위는 단위시간당 물의 부피(體積 또는 容積)이다. 그것의 實用단위는 m³/sec(1초당 입방미터)이다. 이것의 발음이 “1초마다 1입방미터”이라서 音節이 길어 쓰기에 불편하다보니 물 1m³의 무게가 약 1,000kg 또는 1ton이 된다는 概算에서 1m³/sec 대신에 1ton/sec를 代用한 것 같다. 그것은 “초당 입방미터”보다는 “초당 톤”으로 하면 短音節이 되어 편리하다는 데서 유래된 듯 싶다.

물의 비중은 순수한 증류수가 1대기압 상태에서 섭씨 4도(4℃)의 기온에서 0.9999, 약 1이 된다.

그러므로 물의 단위중량은 1gr/cm³(1입방센티미터 당 1그램重—gram weight—)이 되고, 물 1m³의 무게는 1gr × 10⁶, 1kg × 10³, 1,000kg 또는 1ton (= 1,000kg)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홍수때에 하천으로 흐르는 탁류의 비중이 어찌하여 1,000이겠는가? 흙, 모래, 자갈할 것 없이 온갖 浮溜物이 混在되어 있으니 실험치가 없어 정확히 예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탁류의 비중은 아마도 1.2정도를 상회할 것이다. 그것은 海水의 비중이 1.2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八堂댐에서 방류되는 37,000m³/sec의 홍수량의 무게는 44,400ton/sec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더구나 홍수의 피해는 그 중량으로 미치는 것보다 그 부피(용적)로 미치는 영향이 보다 심각한 것이다. 하천의 水位가 상승하여 범람함으로써 제방을 溢流하여 제방을 무너뜨리고 전답을 휩쓸어 버린다. 그리고 人畜은 홍수의 水量에 잠겨서 떠내려 가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洪水가 그 부피로써가 아니고 重量 또는 힘으로만 홍수피해를 미쳐 온다고 하면 수방대책은 지금보다 한결 수월할 것이다. 가령 비중이 13.6인 水銀이 홍수가 되어 하천으로 흐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되면 물과 비교하여 같은 무게에서 그 부피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므로 홍수대책으로서 제방의 높이는 지금보다 낮게 쌓고 오히려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게끔 河床의 支持力を 보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八堂댐의 방류량이 37,000-ton/ sec일 때에 人道橋 수위가 12m라면 水銀이 홍수가 되어 흐른다고 가정하면 인도교 수위는 12m/13.6 즉 1m이하가 될 것이다.

事例3 「用水量의 단위는 부피로 표기되어야 마땅하다.」

각 가정의 상수도 계량기를 들여다 보면 물의 사용량은 입방미터(m³) 단위로 계량하도록 표기되어 있고, 또한 달달이 징수하고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료도 용적(부피)단위로 부과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찌하여 京鄕 각지의 시청 공무원들은 상수도 확장계획이나 또는 하수처리장 계획을 설명할 때에는 몇 백만톤 운운하는 것인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 따로, 사회의 實務에 쓰는 것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심각하다.

사람이 마시는 물이나 농업용수, 공업용수 가릴 것 없이 그 물의 效用性은 부피(용적)에 있는 것이지 重量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하여 물의 效用성이 그 중량에 있다면 물의 비중보다 13.6배나 무거운 水銀을 사용하면 그 용적은 약 1/14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事例4 「○○選手的 100미(米)의 기록이 11초이다.」

우리나라 육상경기 관계인들 중에는 “미터”를 “米”로 간편하게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미터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각급 학교에서도 깊이의 기본단위는 미터(meter)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외래어로서 정착되었다.

日本人들은 “meter”를 “メートル”로 표기하고 있다. 그들은 축소지향적 文化根性을 발휘하여 “メートル” 대신 “米”로 쓰기도 한다. “meter”가 “米”로 表音되어 일본인들에게는 적절하고 쓰기에 편리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들에게는 “米”와 “미터”는 발음상으로 한 音節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굳이 “미터”를 “미(米)”로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미터”를 “米”로 표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맞게 된다. 日本에서는 “미터”의 組立單位로서 “평방미터(平方미터)”를 “平方米” 또는 “平米”로, “입방미터”를 “立方米” 또는 “立米”로 축소하여 표기하고 있다. 그래서 “平米”를 “헤배”로, “立米”를 “류배”로 발음하고 있다.

大學에서도 넓이의 단위는 “평방미터” 또는 “제곱미터”로, 부피의 단위는 “입방미터” 또는 “세제곱미터”로 가르쳐 사회에 내보낸 弟子조차 1년이 채 못되어 “헤배”, “류배”라는 用語를 꺼리낌 없이 쓰고 있음을 바라볼 때에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래서 面積과 體積의 단위를 “헤배”, “류배”를 쓰는 이유를 물어보면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 거기에 어울리지 않으면 배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그것 뿐이리오. 방송에서도 “류배”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으니 이 일본식 외래어는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석 구석에 자리잡은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교육은 어느 위치에서 서있는 것일까?

위와 같은 무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즉 “길이”의 단위는 “米”가 아니고 “미터”로, 넓이의 단위는 “平米”가 아니고 “평방미터” 혹은 “제곱미터” 또는 “넓이미터”로, 부피의 단위는 “입방미터” 혹은 “세제곱미터” 또는 “부피미터”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事例5 「“굴삭기”는 “굴착기”로 바로 잡아야 한다.

요사이 길을 지나치다 보면 건설중기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그것들 중에는 한글로 “굴삭기”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굴삭기(掘削機)가 아니고 굴착기가 맞는 용어이다. 掘鑿(굴착)이라는 어휘는 땅을 파냄, 땅을 뚫음, 땅을 도려냄 등의 뜻이다. 그래서 우물을 파는 것은 “鑿井”이라고 한다. 그런데 日本語에서는 “鑿”字의 代用漢字가 “削”字이다. 그래서 掘鑿(クッサク)와 掘削(クッサク) 두 단어의 발음이 똑같다. 따라서 일본식 표기에서는 복잡한 “鑿”字 대신에 “削”字를 써서 掘削機로 표기함을 유의해야 한다.

日本은 地名이나 기타 용어에 取音字 또는 借字—宛字; あて字(ateji) 즉 漢字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음이나訓을 빌어서 쓰는 漢字—를 적용함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땅을 파는 기계”는 日本語에서는 掘鑿機이든 掘削機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나 韓國語에서는 掘鑿機는 “땅을 파는 기계”의 뜻이고 掘削機는 “무엇을 깎거나 저미는 기계”라는 機能的 해석이 강하다. 따라서 “땅을 파는 기계”는 “굴착기(掘鑿機; excavator)”로 “무엇을 깎거나 저미는 기계”는 “굴삭기(掘削機)”로 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事例6 「整理되지 못한用語는言語生活에 혼란을 초래한다.

1990年 9月 15日 土曜日 밤 모방송 「深夜討論」의 주제는 “수방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었다. 그 토론에 참가한 인사는 모두 7명이었는데, 그들이 쓰는 용어중에 유량, 용량, 홍수량,

저유량 등의 단위를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톤(ton)이라고 쓰는 것을 보고 어안이병병할 따름이었다. 그래도 필자로서는 방송이 시작되기전까지는 나름대로 그분들은 사계의 권위자들이니까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겠지 하는 다소의 기대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에서 “부피”와 “무게”의 단위를 혼용하는 것을 보고서는 적지않게 실망하였다. 2世교육이 걱정스러웠고 科學立國이라는 슬로우전도 한낱 口頭禪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어찌 그뿐이라. 지난 9월 11일, 12일에는 수해의 긴박함 때문에 철야방송을 하게 되었었다. 서울市재해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파견되어 일한 방송기자들도 한결같이 ××댐의 流入量은 秒當 〇〇〇〇톤, 放流量은 秒當 〇〇〇〇톤 등으로 표현하였으며 더구나 漢江 홍수통제소에서 방송하던 기자는 그 곳의 상황판에 ××댐의 流入量; 〇〇〇〇 m³/cm², 放流量; 〇〇〇〇 m³/sec, 貯留量; 〇〇.〇〇 m³/sec(백만입방미터/秒)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불구하고 “m³/sec”은 어김없이 “秒當톤”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신기하기도 하였다. 아마도 기자들은 방송하기 전에 그 상황실 근무자들로부터 “m³/sec”은 “秒當톤”이라고 발음하는 것이다 하고 사전에 적응 훈련(오리엔테이션)이라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도록 숙달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9월 14일 금요일 밤 KBS1 뉴스焦點의 시간에서는 홍수로 붕괴된 뚝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흙이 〇〇류배가 소요된다 운운하였다.

이들로써 미루어 짐작컨대 앞서의 事例1~事例6에서 지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그밖에 술한 技術用語 및 機能用語 등이 아무런 결핍(여과)없이 우리 日常의 생활어에 뒤섞여 우리의 언어생활에 무질서와 부조리를 빚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言語公害를 시급히 정확하지 않고서는 科學技術의 발전에 지장을 줄 것이고, 국민의 언어순화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